

성상담 사례에 나타난 한국사회 노인의 성 문화

서 정 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요약) 본고는 최근 중요한 사회적 안건으로 등장하여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의 성과 관련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노인 성상담실에서 진행된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성 문제 및 고민들을 정리한 후 그에 따른 노인들의 성 문화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령자 성상담에서 드러난 주요한 주제들은 성기능 장애, 부부 성 갈등, 이성교제, 자위행위 등으로 나타났다으며, 상담을 신청한 주요 대상은 60대 남성으로 여성들의 참여보다 거의 4배 정도가 높았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노인들의 성 문화 특성은 성적욕구에 대한 관심, 부부간 성적 소통의 부재, 남성성과 결부된 성적 편견,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등 고령자 개인의 처지에 따른 다양성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노인들의 성 문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노인의 성에 관련된 편견의 타파, 포괄적 성(sexuality)에 대한 이해, 여성 노인들의 삶과 성 고민 드러내기, 결혼생활에서의 부부의 성적 균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Key words: 노인, 노인의 성, 성상담, 성 문화]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150-8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번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정애 박사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herland912@naver.com이다.

고령화와 성

지난 20세기 후반 이래 우리 문화권에서는 과학기술 문명 발달의 혜택으로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개인주의 의식도 팽배해지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한 고령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Maslow(1943)의 욕구단계(Maslow's hierarchy of needs)에 따를 때 성욕은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들이 마치 성적인 욕구가 전혀 없는 존재처럼 무시당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근자에는 노인들 스스로가 생존의 욕구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욕구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성적 욕구는 삶의 질이나 존재감 등과 관련된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김기연·송희영·박소미, 2005; 이형세, 2007; 정중열, 2009; 진영훈, 2008).

최근 노인의 성은 드라마나 영화 등의 영상매체는 물론 대중매체에서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노인들도 불과 20-30년 전의 노인들과 비교할 때 성에 대한 매우 다른 인식이나 태도를 보여주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성적 욕망과 쾌락, 삶의 의미와 질에 대한 추구 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노인들도 성적 주체로서의 위치(positioning)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Lindau, Schumm, Laumann 등, 2007). 과거에는 성을 생식(procreation)과 같은 출산행위하고만 결부시켜 그 당위성을 정립시켰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성을 출산행위로부터 분리시킨 형태, 즉 쾌락으로서의 성 (recreational sex), 생활양식으로서의 성이 부각되고 있다 (Goldin & Katz, 2002).

이러한 성에 대한 인식변화는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성적 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한편, 실제 노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 자기존재감, 삶에 대한 만족감과 결부된 형태로 성을 바라보게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들을 성적 존재(sexual being)로서 인정하기보다는 무성적인

성상담 사례에 나타난 노인의 성 문화

존재(asexual being)로서 위치시킴으로써, 그들이 성적인 욕구를 갖거나 보여주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Walz, 2002).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원숙해지기에 고령화(aging) 자체가 젊음이나 현명함과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젊음은 노인의 성적인 욕구와 분리시켜 인식되기도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편견은 소비주의의 팽배로 인해 건강과 아름다움만을 젊음으로 귀결시키는 가치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Katz & Marshall, 2003).

젊음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치는 노인들을 부정적이고 어두운 존재로 묘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성적 추구를 소외와 무관심의 영역으로 밀어내버린다. 이러한 나이 듦, 즉 고령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고령자의 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들에게 내면적으로 자신의 성을 검열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점잖지 못한 행위’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Walz, 2002). 더욱이 일부 노인들이 성매매나 성폭력 등 성범죄와 연루된 것을 전체 노인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등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이와 같이 노인의 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매우 모순되고 복잡한 양상은 노인의 ‘밝고 건강한’ 성을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하는 과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노인들의 성상담 사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노인들의 현재적 성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위상을 살펴보고 또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노인 성상담 사례 실태¹⁾

노인 성상담은 노인 스스로가 성에 관련된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의 성 문제로 노인의 성을 상담하는 경우, 노인

1)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09년부터 서울, 인천, 청주에 노인 성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정리한 노인 성상담 내용은 2010년도 인구보건복지협회 노인 성상담실에서 진행된 상담 사례들을 종합한 것임.

서정애

이 자녀의 성문제로 상담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성상담은 주로 남성 노인들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60대 연령층의 참여가 가장 높은 편이다. 성상담 내용은 이성교제, 재혼, 성충동, 성기능, 자위행위, 성병, 성가치관, 부부간의 성 갈등, 외도, 성도착증, 약물문제, 성매매, 성폭행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표 1>을 보면,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성기능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빈도가 높으며, 부부간의 성 갈등이나 이성교제, 자위행위, 성가치관 등의 영역도 관심이 높은 영역에 속한다.

<표 1>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상담건수와 성상담내용 전반에서 남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상담건수를 보면, 남성 노인의 상담건수는 82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1,042건)의 79%를 차지했던 데 비하여 여성 노인의 상담건수는 219건으로 전체상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상담 분야는 성기능, 부부 성 갈등, 성충동, 자위행위 등이었는데, 성적 행동이나 태도에서 나타난 성차는 청소년기에 나타난 성차와 매우 유사했다 (김혜원, 2003). 특히, 젊은 시절과 비교하여 성기능이 약화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에서의 성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기능에 대한 상담의 경우 남성 노인은 무려 239건으로 전체상담의 22.9% 또 남성들의 상담 건수의 29%를 차지한데 비해 여성 노인은 31건으로 전체상담의 3.0% 또 여성들의 상담 건수의 14.2%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자위행위의 경우 남성 노인은 67건으로 전체상담의 6.4% 그리고 남성들의 상담 건수의 8.1%에 해당되었지만, 여성 노인은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가 엇비슷한 비율을 보인 상담분야는 이성교제, 재혼, 외도, 부부 성 갈등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부부 성 갈등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남성 노인은 전체의 18.6%(남성 상담 건수의 23.6%) 그리고 여성 노인은 전체의 4.0%(여성 상담 건수의 19.2%)나 차지했다. 본고에서는 세부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부부 성 갈등을 호소했더라도 그 이유나 유형에서는 성차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호선, 2005; Youn, 2009).

성상담 사례에 나타난 노인의 성 문화

<표 1> 상담 내용 및 성별에 따른 상담 실적 [n, (%)]

내용 \ 성별	남성	여성	전체
이성교제	57 (5.5)	33 (3.2)	90 (8.6)
재혼	17 (1.6)	10 (1.0)	27 (2.6)
성 충동	47 (4.5)	5 (0.5)	52 (5.0)
성기능	239 (22.9)	31 (3.0)	270 (25.9)
자위행위	67 (6.4)	1 (0.1)	68 (6.5)
성전파성 질환	20 (1.9)	8 (0.8)	28 (2.7)
성 가치관	33 (3.2)	7 (0.7)	40 (3.8)
부부 성 갈등	194 (18.6)	42 (4.0)	236 (22.6)
외도	28 (2.7)	10 (1.0)	38 (3.6)
변태성욕	4 (0.4)	1 (0.1)	5 (0.5)
약물문제	7 (0.7)	0 (0.0)	7 (0.7)
성매매	1 (0.1)	1 (0.1)	2 (0.2)
성폭행	3 (0.3)	4 (0.4)	7 (0.7)
기타	106 (10.2)	66 (6.3)	172 (16.5)
	823 (79.0)	219 (21.0)	1042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사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한편, 연령에 따른 상담사례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 2> 참조), 60대와 70대의 비율이 거의 70%를 차지했으며, 50대의 비율도 18% 정도를 차지했다. 노인을 위한 성상담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실 이용자의 상당수가 50대였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노인에 대한 통속적인 연령 기준(예, 65세 또는 60세 이상)에 상관없이 퇴직이나 자녀 결혼 등으로 역할이나 지위 등의 변화(예, 조부모)를 경험하여 상담실 이용을 스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었다. 또 비록 전체 상담건수의 2.8%에 불과하지만, 80대의 고령자들도 성상담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정애

이제 연령별로 상담 영역을 정리한 내용은 <표 3>에 소개하였다. 연령별 상담내용을 보면, 연령의 고저에 상관없이 부부사이의 성적 갈등 문제와 성기능 문제에 대한 상담 건수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부부 사이의 성적 갈등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상담자의 상담수가 기혼자라는 사실이며, 과거와 달리 노인들의 성적 욕구와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노인들이 성적 욕구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성충동에 관한 상담 내용이 이를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둘째, 고령의 상태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성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성기능 문제를 호소하는 상담이나 외도에 대한 문제 상담이 이와 같은 점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앞에서는 상담을 신청한 노인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상담 내용을 빈도로 정리했지만, 노인의 다른 특성에 따라서도 정리가 가능했다. 물론 본고에서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배우자를 비롯한 성 파트너의 유무, 파트너와의 연령차이, 사회경제적 수준, 질병 유무, 개인의 성적 관심 사항 등에 따라서 고령자들의 성적 욕구의 양상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성상담 양상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노인 스스로가 성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대

<표 2> 연령에 따른 상담 실적 [n, (%)]

연령 \ 성별	남성	여성	전체
50대	139 (13.3)	53 (5.1)	192 (18.4)
60대	331 (31.8)	94 (9.0)	425 (40.8)
70대	256 (24.6)	41 (3.9)	297 (28.5)
80대	23 (2.2)	6 (0.6)	29 (2.8)
연령 미상	74 (7.1)	25 (2.4)	99 (9.5)
	823 (79.0)	219 (21.0)	1042 (100.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사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성상담 사례에 나타난 노인의 성 문화

<표 3> 연령별 상담 내용 [n, (%)]

상담내용	50대	60대	70대	80대	연령미상
이성교제	4 (0.4)	43 (4.1)	34 (3.3)	3 (0.3)	6 (0.6)
재혼	5 (0.5)	13 (1.2)	5 (0.5)	1 (0.1)	3 (0.3)
성충동	8 (0.8)	19 (1.8)	15 (1.4)	0 (0.0)	10 (1.0)
성기능	44 (4.2)	115 (11.0)	95 (9.1)	9 (0.9)	7 (0.7)
자위행위	23 (2.2)	16 (1.5)	16 (1.5)	1 (0.1)	12 (1.2)
성전파성 질환	4 (0.4)	18 (1.7)	4 (0.4)	0 (0.0)	2 (1.9)
성가치관	11 (1.1)	12 (1.2)	6 (0.6)	1 (0.1)	10 (1.0)
부부성갈등	49 (4.7)	98 (9.4)	67 (6.4)	4 (0.4)	18 (1.7)
외도	5 (4.8)	25 (2.4)	4 (0.4)	1 (0.1)	3 (0.3)
성도착증	1 (0.1)	2 (0.2)	0 (0.0)	0 (0.0)	2 (0.2)
약물문제	0 (0.0)	1 (0.1)	5 (0.5)	1 (0.1)	0 (0.0)
성매매	0 (0.0)	1 (0.1)	0 (0.0)	0 (0.0)	1 (0.0)
성폭행	3 (0.3)	1 (0.0)	3 (0.3)	0 (0.0)	0 (0.0)
기타	35 (3.4)	61 (5.9)	43 (4.1)	8 (0.8)	25 (2.4)
전체	192 (18.4)	425 (40.8)	297 (28.5)	29 (2.8)	99 (9.5)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사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함

부분이었지만, 노인의 가족이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한 상담 신청이나 노인이 자기 가족의 성 문제에 대한 상담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상담내용에 나타난 노인 성 문화 추이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성기능 장애 인식. 나이가 들에 따른 신체적 기능에서의 변화는 노인의 성적 특성을 반영하는 일차적인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들의 성상담 사례 중 연령의 고저에 상관 없이 ‘성기능’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즉 남성 노인들은 나이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과 같은 성기능 장애(sexual dysfunction)에 대한 치료에 매우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와 달리 여성 노인들도 성적 욕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남성 노인들의 고민들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생겨나고 있다.

남성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에 따른 기능 변화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다른 방안을 찾기보다도 젊은 시절과 비교하여 신체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하여 그리고 젊은 시절처럼 성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남성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의 성문화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해주는 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작년에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받았다. 2년 전부터 발기가 잘 되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수술을 받고나서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발기가 잘 안 되고 있다.” (70대 남성)

“재혼을 한 지가 6개월이 되었는데, 아내가 60대이다. 아내의 욕정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 (72세 남성)

성 파트너 유무에 따른 노인의 성적 갈등과 욕구. 상담을 의뢰한 노인들의 유형을 관계적 측면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재 결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성상담 사례에 나타난 노인의 성 문화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한 배우자가 존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있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성적 상호작용이 어렵거나 아예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 등의 이유로 성적 파트너가 없는 경우이다.

성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성적 욕구의 정도에서 차이가 심하거나, 한쪽의 배우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이유로 성적 요구에 쉽게 응하기 어렵다는 성상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성 갈등이 노인 성 상담의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부부간의 성 갈등에는 주로 남성노인의 발기부전문제, 이로 인한 여성파트너의 성적 불만, 여성배우자의 거부와 무관심으로 인한 성적 관계 단절, 부부 상호간의 빈곤한 성적 소통과 성적 기능의 문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Youn, 2009).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네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충동을 자주 느끼고 성관계를 갖고 싶지만 아내가 자주 거부한다. 아내는 성관계를 별로 즐겨워하지 않는다. 아주 귀찮아서 싫어한다.” (60대 남성)

“저의 1년 전부터 아내를 만족시켜줄 힘이 없는 것 같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성 기력이 계속되는지 궁금하다.” (65세 남성)

“남편(74세)은 당뇨, 혈압, 전립선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는데, 병원에 가서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지만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한 달에 3-4회 성관계를 시도하고 있지만, 남편은 더 자주 원하는데 나는 귀찮고 싫다. 여자도 비아그라 같은 것이 있는지?” (70세 여성)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난 지 7-8년이 되었다. 지금은 각방을 쓰고 있어도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한다. 지금은 서로 정도 남아 있지 않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사는 것 같다. 성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3-4일에 한 번씩 자위행위로 이를 해소시키곤 한다.” (70세 남성)

이제 파트너가 아예 없는 노인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에게는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성의 파트너와 교제를 하고 싶은데, 상대를 어떻게 하면 또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상담으로부터 이성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 등도 늘어나고 있다. 이성의 파트너가 없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이성을 직접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여성보다도 남성 노인들에게서 더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단지 외로움의 해소 차원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요구와 증착되어 있었다. 물론 여성 노인도 남성 파트너가 없었을 경우 성적 욕망 때문에 남성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여성 노인이 남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거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상담 사례는 거의 없었다. 남성들의 성 파트너를 찾는 요구를 보여준 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관에서 댄스를 배울 때 여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이 더 적어서 처음에는 여자랑 댄스 짝꿍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여성들끼리 댄스 짝꿍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여자와 짝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자랑 짝꿍을 하고 싶다.” (74세 남성)

“혼자서 살게 된 지 7년째이다. 너무 외로워 누군가를 사귀고 싶다.” (60세 중반 남성)

노인의 성 인식과 행동의 ‘각본.’ 일반적으로 적절한 성행동이나 성적 경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기준을 성적 각본(sexual scripts)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각본은 문화적으로 학습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Gagnon & Simon, 1973).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요즈음 통용되는 노인들의 성행동은 어떤가? 특정한 기준을 따르는가? 상담을 신청한 노인들에 따르면, 특정한 연령에 따른 성행위 등에 관한 준거가 존재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바로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성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성욕 해소가 어렵더라도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노인들은 성행위를 규칙적으로 시도해야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거나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역으로 남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행위를 규칙적으로 시도하든지 아니면 시도가 어려울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의 상당수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늙어버리거나 발기부전을 비롯한 건강의 이상을 초래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강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Youn, 2009).

소위 고령자들의 성 담론의 대다수는 성행동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강화시키면서 실천이 용이하지 않은 성행동 각본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신의 성행동이 그와 같은 각본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성행동이 정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들의 일부는 불안을 느끼게 되어 의료적이거나 비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예, 약물이나 의료적 처치를 통해서 성기능을 회복하거나 젊은 시절처럼 발기상태가 유지되면서 성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 이러한 면들이 상담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각본에 따른 기준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실버TV 등의 대중매체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었다. 즉 상담과정에서 드러난 노인들의 시점에 의하면, 대중매체에 소개된 고령자들의 성에 대한 담론들은 노인 개개인의 성 의식이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노인들의 성 각본을 짐작할 수 있는 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 나이에 맞게 성관계 횟수를 유지해야 건강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의 경우 꼭 여성의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혼한 65세 남성)

“실버TV에 출연했던 어떤 남자분이 조루나 발기부전에 특효를

서정애

지닌 무슨 약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게 무슨 약인지 알고 싶다.” (70세 남성)

“실버TV를 보면 70대나 80대에도 성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 (68세 남성)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성을 위한 제안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동안 성적인 존재(sexual beings)라는 명제에서 드러나듯이, 노인들의 성 담론은 성적 관심과 성생활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노인들의 성 담론이 형성되고 존재하지만, 노인 성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유감스럽게도 사회적 편견과 몰이해 등으로 인하여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인 성상담 사례분석을 토대로 보다 밝고 건강한 노인들의 성을 위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타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노인 스스로의 성 의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성과 남성의 성에 관한 고정관념이 생의 후반기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성 노인들이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를 마치 남성성이 상실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여성 노인들이 폐경으로 인한 출산 기능의 상실을 여성성이 상실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흰머리나 주름 등이 생기는 신체 이미지 변화를 점차 젊음이나 성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부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성적인 행동을 점잖지 못한 또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노인들이 성에 대한 전형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스스로 성적 불만족이 가중되고 파트너와의 갈등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둘째, 삶에서 성적인 욕구가 매우 중요하지만, 노인들의 성행동을

성상담 사례에 나타난 노인의 성 문화

이해할 때 단순히 성행위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성적 파트너가 없는 고령자들이 파트너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만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외로움의 해소, 친밀감의 획득, 자기 존재감 확인, 애정 등의 매우 복잡한 이유와 동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의 성 문제를 대응할 때 성행동 중심적인 성의 차원을 초월하여 그들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sexuality)이란 성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또는 사회적이고 경제적 측면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윤가현, 1990).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는 신체적인 변화 및 그러한 변화를 고령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나아가 노인들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기능의 변화에 수반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인의 성은 생리적 변화에 따른 성기능의 변화, 성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된 신체 상태에 따른 대안적인 성생활을 포함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김기연 등, 2005; 김세철 등, 2008), 무엇보다 노인들의 복잡한 성적 욕구에 대한 해결이 성행동으로만 귀착되지 않는, 상대방과 교감하면서 친밀성을 경험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하고 대안적인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 노인들의 성적인 고민들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적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노인들의 절대다수는 남성들이지만, 그들의 파트너인 여성 노인들의 성적인 고민까지도 대부분 남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실정이다. 고령자 부부사이의 성적 갈등에 관련된 문제를 예로 든다면, 상담을 요청한 분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여성보다도 남성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을 뿐, 여성의 관점은 숨겨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여성 노인들이 성관계를 기피하는 이유, 각방을 쓰는 이유, 여성 노인들의 성적 욕망, 혼인관계, 주거형태 등 여성 고령자 개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인식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진희·윤가현, 2011; 이동욱, 2010; Youn, 2009). 이는 상담을 통한 갈등해결이 남성

서정애

노인의 요구에 치중됨으로써 관계적 측면에서 성 갈등을 풀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 부부의 성 문제를 이해할 때 핵심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는 결혼생활에서의 성적 균형성(sexual equilibrium in marriage), 즉 그들의 관계성 문제이다. 이는 두 사람의 성적인 능력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그리고 두 사람이 이러한 능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Kingsberg, 2000; Trudel 등, 2008). 여기서 성적인 능력은 단순히 생리적인 차원의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며, 심신의 측면에서 성적 욕구를 가지는 것, 성적인 자극에 반응하려는 것, 성적인 쾌락을 경험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만약 고령자들의 신체적 및 심리적 변화 때문에 이러한 성적 균형성을 저해시키게 되거나 다양한 성적 문제들을 야기하므로 고령자들의 부부관계에 관련된 상담과정에서 성적인 균형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들의 성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성상담 사례를 통해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성기능과 관련된 약물이나 성 매개 감염(STIs: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성매매 문제가 고령자들의 큰 관심 사안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들의 성을 바라볼 때 성 건강(sexual health) 문제를 예방이나 대처 차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성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신체적 질병에서 자유롭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녕을 유지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성 건강의 차원에서 고령자들이 안고 있는 복잡한 성 관련 고민이나 갈등이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부 노인들은 성 건강을 성기능이나 성행위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탓에 성매매나 성폭력에 연루되어 사회적 과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남성의 성기능 장애나 성적 욕구불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성 노인들에게 구매 차원의 성매매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간혹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 격이 맞지 않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적인 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남성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성상담 사례에 나타난 노인의 성 문화

발기부전치료제의 부작용이나 STIs 등은 남성만의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 성적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 교육 및 개입(sexual education and intervention)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령자들의 성 관련 문제들을 성기능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기보다도 성 건강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연 · 송희영 · 박소미 (2005). 노인의 성 지식, 태도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4), 324-332.
- 김세철 · 김원희 · 윤가현 · 채규만 (2008). *Human sexuality (성학)*. 서울: 군자출판사.
- 김혜원 (2003).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2), 309-328.
- 박진희 · 윤가현 (2011). 부부갈등으로 인한 별침에 대한 태도의 성차. *대한남성과학회지*, 29 (3), 199-205.
- 윤가현 (1990). *성 심리학*. 서울: 성원사.
- 이동옥 (2010). 한국의 노인 성담론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한국여성학*, 26 (2), 41-69.
- 이형세 (2007). *노인의 성범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선 (2005). 노년기 부부 성 갈등 개입을 위한 목회상담적 모델. *목회와 상담*, 7 (가을), 217-242.
- 정종열 (2009). 현대사회의 노인문화 연구: 남성노인의 성인식과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50, 607-634.
- 진영훈 (2008). *노인의 성 욕구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gnon, J., & Simon, W. (1973). *Sexual conduct: The social sources of human sexuality*. Hawthorne, New York: Aldine.
- Goldin, C., & Katz, L. F. (2002). The power of the pill: Oral

- contraceptives and women's career and marriage deci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 (4), 730-770.
- Katz, S., & Marshall, B. (2003). New sex for old: Lifestyle, consumerism, and the ethics of aging well. *Journal of Aging Studies*, 17, 3-16.
- Kingsberg, S. A. (200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aging on sexuality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Health & Gender-based Medicine*, 9 (Suppl. 1), S33-38.
- Lindau, S. T., Schumm, L., Laumann, E., Levinson, W., O'Muircheartaigh, C, & Waite, L. (2007). A study of sexuality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7 (8), 762 - 774.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4), 370-396.
- Trudel, G., Boyer, R., Villeneuve, V., Anderson, A., Pilon, G., & Bounader, J. (2008). The marital life and aging well program: Effects of a group preventative intervention on the marital and sexual functioning of retired couples.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23, 5-23.
- Walz, T. (2002). Crones, dirty old men, sexy seniors: Representations of the sexuality of older persons. *Journal of Aging and Identity*, 7 (2), 99-112.
- Youn, G. (2009) Marital and sexual conflicts in elderly Korean people.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35, 230-238.

**Sexual Culture in Serxuality Counselling Cases
for the Korean Older People**

Jung Aee Suh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Seoul, Korea 150-808

The article deals with the sexuality of the Korean elderly which rises up as an important social discourse in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e consultation case studies to see the current situation and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xual culture of the Korean elderly. It is through the consultation known that the main issues are sexual malfunction, sexual conflict between couples, romantic relationship (physical contact with the opposite sex), masturbation, and that the male in the 60s participate in the counselling four times more actively than the female. The consultation reveals that their sexual characteristics are a high interest in sex desire, a low sexual communication between couples, a biased view related to the masculinity, a general relationship with the spouse, a worry about health. The suggestions for the health of the elderly's sexual culture are to do away with the sexual bias, to expose the lives and agony of the female elderly, to maintain the sexual equivalence in marriage life.

(논문접수일: 2012년 10월 6일)

(수정논문접수일: 2012년 11월 12일)

(논문게재승인일: 2011년 11월 28일)